

초대

칼럼

우리경제가
새 봄을
맞이하는 법



김 박 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

I MF시대 1년의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맞이하는 봄에 대한 느낌이 어느 해보다 유별나고 새롭다. 겨울이 추워야 꽃이 아름답다고 하니 꽃은 예년에 비해 덜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역시 봄은 만물에 소생하는 기쁨을 안겨다 준다. 자연이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경제에도 저 멀리서 봄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지난 1년동안 우리경제는 국가부도위기, 고환율, 고금리, 고실업과 기업의 대량부도로 -6%수준의 성장이라는 혹독한 겨울을 보냈고, 이러한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전국민이 전력투구한 결과 금년에는 투자적격이라는 대외신인도 회복과 1~2%의 경제성장을 보이리라는 봄소식을 접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에 봄이 오는 것과 인간사회에 봄이 오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는 자연의 봄은 시간이 지나면 오는데 비해 인간사회의 봄은 시간에 관계없이 그 구성원이 철저히 준비할 때만 온다는 사실이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닐지 꼼꼼히 살펴보고 대비할 일이다.

지난 1년간 온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 허리띠 졸라매기, 공공·금융·기업·노사부문 등 4대 구조조정 등에 매진한 결과 이제 간신히 외환위기를 벗어났지만 각 분야의 개혁과 구조조정은 아직 진행중에 있다. 우리가 겪어온 총체적 혼란의 상처는 예상보다 심각하다. 국민소득이 7년전으로 후퇴하였고, 실업자는 200만을 육박하고 있으며,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었고, 개인의 파산과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대량의 정리해고, 평생직장개념의 약화, 연봉제의 확산 등과 같은 낯선 제도를 받아 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간신히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일 뿐이지 터널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개혁의 총론에 찬성하였던 각 경제주체들도 각론에서는 주저하고 저항하고 있으며, 위기의식이 헤아려지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경제의 위기가 과거 30년간의 압축성장의 후유증으로 비롯된 것이며, 대외여건의 변화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결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가 진정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왜 겨울이 왔는가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다가오는 무한경쟁의 21세기에도 우리는 따

뜻한 봄날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겨울과 위기는 과거의 성공속에서 잉태되었다. 차입경영, 방만한 투자, 관치금융, 부정부패, 금융감독의 소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불투명한 기업경영, 노사관계의 경직성 등 고속성장시대에는 용인되었던 관행이 글로벌화되어 가는 새로운 세계경제의 조류에는 통하지 않았다. 글로벌 경제에 적응하기에는 너무 근살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라는 변화자세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글로벌화되어 가는 세계경제에는 대내문제와 대외문제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IMF시대를 맞이한 후 미국의 경기, 엔환율의 변화, 러시아나 브라질의 금융위기, 위안화의 평가절하 여부가 주가를 요동치게 하는 등 우리경제에 미친 영향이 그 단적인 예라 하겠다. 급변하는 세계경제에 빠르게 적응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경제의 체질이 강인하고 신축적이어야 한다. 과거에 우리의 성공을 뒷받침한 제조업에만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기득권에 집착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새로운 조류에 적응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1달러 80엔의 엔화강세를 견디어낸 일본경제가 1달러 120엔시대에도 긴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일이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과거와 같은 패러다임은 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IMF시대에 얻은 교훈을 살리고 한국경제의 진정한 봄과 21세기를 보람있게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어려운 것도 아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면서도 실천하지 않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우선 가장 필요한 것은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끝없이 이어지는 부패와 탈세와 비리의 사슬을 끊고 원칙이 통하는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 이 세상 어디에 준법투쟁이라는 말이 통용되는가? 개인과 기업과 정부는 모두 정해진 룰을 지켜야 한다. 룰이 지켜진다면 어

떻게 전관예우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쓰여질 수 있는가? 현정부의 국정지표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국정지표도 원칙이 통하는 사회와 법을 지키는 국가건설에 다름 아니다.

다음으로 실력을 기르는 일이다. IMF시대를 맞아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과신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대외협상, 대내조정, 컨설팅, 지식 및 정보화에서 제조업의 경쟁력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경쟁력이 부족함을 뼈아프게 느껴야 했다.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국가중에 하나인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실력이 부족한가? 이는 암기식 교육과 모든 것을 적당히 해 온 과거의 답습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을 입시위주의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바꾸고, 모든 일을 철저하게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세계화를 부르짖던 시절부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공무원, 학생, 기업인, 농부가 되자는 다짐의 공익광고를 눈이 아프게 보아왔다. 그런데 왜 우리는 IMF시대를 맞고 일부 기업의 경영권과 컨설팅 등 전문분야를 외국인에게 내주고 있는가? 다짐을 뒷받침하는 실력을 기르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글로벌화시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깥세계의 흐름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바깥 세계에서는 글로벌화시대에 살아남기 위하여 선·후진국 할 것 없이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지피지기(知彼知己)해야 한다.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정보화와 지식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이 흐름에 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세계질서의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외여건의 변화가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원칙이 통하는 국가, 실력있는 국가, 바깥세계의 사정에 정통한 국가가 되면 우리는 다가오는 봄을 즐겁게 맞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에도 지속적으로 봄의 따뜻함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

